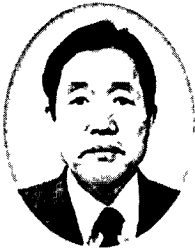


五臟六腑의 解剖와 生理

강 태 일



五臟六腑는 韓醫學에서 쓰이는 用語이다. 五臟六腑는 사람의 內臟인데 韓醫學에서는 五臟六腑의 醫學이라 할 만치 이것을 重要視하고 있다. 모든 理論구성이 五臟六腑에 根據를 두고 있다.

韓醫學에서 말하는 五臟六腑는 解剖學的인 장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機能에 초점이 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한의학에서 肺라고 하면 단순히 가슴 양쪽에 해부학적으로 位置하는 肺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呼吸을 담당하는 呼吸幾系 전체의 機能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一. 人體와 生命活動

사람의 오장육부의 각 장부의 해부와 生理를 說明하기 前에 그날 生命活動을 먼저 說明하고자 한다.

사람의 陰(-)과 陽(+)의 두가지 氣運과 營養素를 받으며 生命活動을 維持한다. 陽의 氣運과 營養素는 天의 氣라고 하며 肺의 呼吸을 통해서 吸收되고 陰의 氣運과 營養素는 地의 氣라고 하며 飲食物을 통해서 吸收된다.

地의 氣인 飲食物은 胃로 보내진다. 여기에서 飲食物이 淨化되어 小臟으로 보내진다. 胃와 小臟은 飲食物을 淨化하여 營養素의 엑기스인 精微한 物質인 精을 軸出해낸다.

가스과 便은 大臟으로 보내지고 水分은 膀胱으로 보내지고 精은 脾臟에 보

■ 五臟六腑의 解剖와 生理

내며 그 통제를 받으며 全身에 報信된다.

眞의 一部分이 榮이 되어 肝 속에 들어가 血이 되는데 肝이 血을 저장하고 心은 血을 人體各處에 순환시켜 營養素를 공급한다.

天의 氣(+)는 肺의 呼吸을 통해 體內에 들어와 腎에 저장된 精과 丹田에서 合體(天의 氣(+) 地의 氣(-) 陰陽合一)하여 生命活動의 源泉인 眞氣가 된다.

丹田에서 생성축적된 眞氣는 經絡을 따라 五장부와 全身에 흘러 生命活動의 源泉이 된다.

小宇宙인 人體는 大宇宙와 相互作用을 주고 받는데 五臟六腑는 이러한 體内外의 相互作用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그 기능을 遂行한다.

五장六부와 體内外의 關係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의학적인 理論과 現代醫學的인 理論으로 살펴보았다.

二. 五臟六腑의 解剖와 生理의 各論

1) 五臟 … 肝 心 心包 脾 肺 腎(心包를 포함하여 6臟이라고 한다.)

2) 六腑 … 膽 心腸 三焦 胃臟 大腸 膀胱

3) 肝臟 …

- 位置 : 肝은 사람의 몸에서 가장 큰 선으로서 명치의 바로 밑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 놓여 있는데 大部分 갈비뼈 밑에 있다.

- 肝의 狀態

肝은 검붉은색으로 비교적 말랑말랑한 몸체로서 무게는 1.7kg이나 되고 상부는 둥글고 下部分은 우묵하다. 右葉과 左葉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즉 오른쪽 肝이 더 크다. 正常的인 狀態에서는 肝이 만져지지 않는다. 그러나 肝이 부어 오르면 밖에서도 만져진다.

- 肝이 하는 일(生理)

肝에서는 하루에 600cc 정도의 담즙(쓸개물)을 만들어 수담관으로 부터 小

腸으로 보내어 消化를 돕는다. 肝은 피 속에 있는 赤血球의 성숙을 돕는 物質을 만들고 血液을 저장해 두었다가 피를 많이 흘렸을때 저장한 血液을 동원하며 영양분의 하나인 알부민은 肝에서 만든다. 또한 肝은 血液 속에 있는 독성 물질을 뽑아내어 담즙에 섞어 배설한다. 五臟六腑 중에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곳이 肝이다.

● 肝이 異狀이 생기면(병이 들면)

- * 肝은 血液을 담고 있다고 보며 人體의 힘줄을 다스리게 되므로 肝에 病이 들면 몸에 麻痺가 온다고 한다.
- * 肝은 눈과 直結되어 있어 肝이 病이 들면 저절로 눈물이 나오고 눈이 흐리며 눈이 부서 햇볕을 쳐다보지 못하게 된다.
- * 肝은 손톱과도 관계가 있어 肝이 건강하면 손톱이 윤기가 나고 실하며 肝이 病들면 손톱이 얇아지고 검푸르며 윤기가 없어진다.
- * 肝은 疲勞의 源泉이다. 肝에 病이 생기면 아주 疲勞해진다. 큰 理由없이 피로하면 肝의 病을 의심해야 한다.
- * 肝(木)이 旺盛적實하면 몸 속에 酸이 많이 분비되어 酸過多症이 생기고 酸性體質이 되어 속이 쓰린 증상이 많고 胃潰瘍 등이 나타난다.
- * 木氣運을 抑制하는 食品은 매운맛이며 보조적으로 단맛의 飲食이 도움이 된다.
- * 五臟의 陰陽生理的으로 論하면 다음과 같다.
 - 肝臟은 속진卦故로 上在二陰하고 下在一陽하야 陰盛陽衰 陽從陰者是弱者는 從強之理故로 陽升也니 그러므로 春氣는 升而生溫하고 肝氣는 升而生潤也니라.
 - * 肝은 厥陰故로 寒極而陽生之而故로 肝전괘는 一變而爲兌하고 二變二爲乾하니 이것은 春氣는 上升之理故로 立春에 三陽이 在上하야 春氣는 陽升而溫生하고 肝臟은 氣升而和潤也니라.
 - * 肝血이 生하는 것은 下受腎水하야 腎生精血者는 腎生肝血故로 以生血

■ 五臟六腑의 解剖와 生理

하나니 血色이 和潤하고 血和而壯筋者는 肝與腎之血이 生養也니라.

- * 肝血이 運者는 上焦心包하야 心包는 動血之官故로 以動血을 하니 血色이 和潤하고 神魂이 平安者는 肝與心官之血이 溫陽也니라.
- * 肝장에서 氣가 生하는 것은 上焦心火하야 火生熱氣者는 肝生心氣(木生火)故로 以生氣하니 氣色이 和潤하고 氣和而身溫者는 肝與心之氣가 生養也니라.
- * 肝氣가 運者는 下生三焦하야 三焦는 運氣之官故로 以運氣를 하니 氣和而魂安하고 夢寐가 平安者는 肝與三焦之氣가 運養也니라.
- * 肝者는 血多氣少하야 藏血之官故로 肝爲血海하니 血和則肝臟이 和潤하야 神氣安而色潤하고 肝者陰多陽少故로 在下部爲陰하고 付脊而近腹者는 陰盛故也니라.
- * 肝者는 陰多陽少하야 陰氣盛寒하야 陰盛而血寒故로 靑氣가 在面者는 寒勝而血寒하야 面靑故也니 此는 肝木이 色靑之理也니라. 肝者는 陰多而陰盛故로 肝色은 暗赤이요 二陰而一陽故로 眼은 二個이요 郎은 一俱이다.
- * 肝者陰多陽少하야 屬木爲風하야 風動則氣升而血寒故로 惡寒而發熱者는 肝氣로 升發也요 痺在筋肉하야 手足이 麻痺者는 肝血之收斂也니라.
- * 惡寒者는 陰盛而陽裏하야 寒勝故로 惡寒이 되고 發熱者는 一陽이 上升하야 熱生故로 發熱이 되고 厥逆者는 陰盛而血寒하야 氣逆故로 厥逆이 되고 氣痺者는 陽裏而氣少하야 氣不運故로 麻痺가 되고 身寒者는 陰盛而寒勝하야 血寒故로 身寒이 되고 面靑者는 陽升而氣逆하야 木色故로 面靑이 된다.

三. 心臟

■ 心臟의 位置와 狀態

- * 心臟은 가슴 속의 左右 肺 사이에 끼어있으며 3분의 2가 왼쪽으로 치

우쳐 있고 心臟 끝이 젖꼭지밑에 있다.

- * 心臟의 크기는 주먹만 하며 길이는 約 12~15cm 정도이고 무게는 250~300g 정도이다.
- * 上部는 뭉툭하고 둥글며 끝은 뾰족하여 이것을 심청이라. 이 심청은 왼쪽 젖꼭지 밑의 앞가슴에 가깝게 닿아 있다. 왼쪽 젖가슴을 눌러보면 손에 툭툭 와 닿는다. 이것이 심청박동이다.
- * 심장속을 심내강이라 하는데 네칸으로 나누어 있고 심장에는 여덟개의 血管이 出入하고 있으며 심장의 근육에 영양분 산소를 공급하는 血管을 冠狀動脈이라 한다.

■ 심장이 하는 일(作動)

- * 心臟은 온몸에서 모여든 靜發血을 肺로 보내어 산소를 공급받은 動發血을 다시 받아들여 이것을 온몸에 나누어주는 펌프역할을 하고 있다.
- * 심장은 1분간 70~80회를 박동하고 있다. 이 박동이 빠르면 열이 오르고 늦으면 차진다.
- * 한의학에서는 심장이 生命을 주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심장의 움직임이 멎는 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심장은 生命의 根本으로 보고 있다.
- * 사람의 精神活動과 意識 및 모든 生覺이 모두 心臟에 있으며 똑똑하고 똑똑치 못함이 모두 심장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 심장의 病的狀態(병이 들면)

심장이 건강하고 마음이 화평한 것은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 심장이 약하면 얼굴색이 창백하고 심장이 지나치게 활동하면 얼굴이 벌겍게 되고 숨을 헐떡인다. 심장이 和平하면 늘 웃는 얼굴이다. 우리 말에 紅顏白髮이란 말이 있다. 이것은 머리가 허영게 늙었는데도 生命의 根本인 심장이 튼튼하고 正常이라 얼굴이 붉다는 뜻이다. 즉 長壽하겠다는 말이다.

■ 五臟六腑의 解剖와 生理

심장의 움직임과 심장에 病이 생긴 것은 혀와 직결된다는 말이다. 마음이 편하면 음식맛도 제대로 나며 흥분하면 혀가 뻗뻗해져 말이 잘 안되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말문이 막히고 또 鬱火病으로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 心臟의 生血作用

* 심장 속진 卦故로 심장에서 生血을 한다는 것은 血因陰生하여 生血이 되는 故로 心은 陽中有陰하여 心血은 陰이며 血이다.

■ 心臟의 運血作用

* 심장에서 運血을 한다는 것은 血因氣動하여 運血이 되는 故로 심장을 動靜二血을 運營하여 全身을 溫養하나니라.

* 比動靜二血이 善爲調和則 심장은 養血養神이 充足하여 身즐가 健康할 수 있다. 그리하여 陽爻은 天中霧露와 같고 陰爻은 天陰甘雨와 같다.

* 比西露가 善爲順調則百草가 豐盛할 수 있다. 또한 心血은 出入하고 心熱은 升降한다고 하니 心血은 陽中有陰하여 陰從陽인 故로 心血은 左右로 出入을 하고 있다.

心熱은 心진卦 上下有陽 陽氣代熱故로 心熱은 上下로 升降한다.

그러므로 心진卦는 二陽一陰而陽盛故로 女子는 上部乳房이 發達할 것이요 二陽一陰故로 心竅와 乳房은 二個이요 舌은 一俱이다.

■ 心包

심장을 싸고 있는 껍질로 심장과 같은 것으로 다루기 때문에 心包를 포함하여 五臟이라 한다.

그러나 六臟으로 나누기도 한다. 西洋醫學에서는 心包에 관해서는 言及하지 않으며 韓醫學에서만 다루워지고 있다.

韓方에서 心包는 심장의 외위 즉 밖을 지켜주는 것으로서 심장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쉽게 說明하면 심장은 사람의 몸의 왕에 해당하는 것이며 심포는 이 왕을 지켜주는 호위병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심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故로 심장과 心包는 같은 것으로 이것을 同本之臟이라고 하고 있다.

■ 脾臟

● 脾臟의 位置와 技能

* 사람의 몸속에는 지라라고 하는 脾와 지라라고 하는 韃가 따로 있다. 이 두 장기는 모양 역할 위치가 각기 다르다.

* 脾臟은 왼쪽 갈빗대가 끝나는 곳에 있으며 명치 및 위의 뒤에 있으며 등에 붙어 있으며,

* 韃장은 아주 큰 消化선 즉 消化液을 만들어내는 곳으로서 胃의 뒷쪽뼈의 앞에 가로 누워 있으며 韃장의 머리는 십이지장에 둘러 쌓여 있다.

* 첫번째와 두번째 허리뼈 높이에 位置한다. 그리고 韃장의 꼬리부분은 비장에 닿아 있다.

* 비장의 무게는 약 200g 정도이고 길이는 약 12cm 정도이며 편편하고 둥근 모양으로 얇은 피막에 쌓여 있고 바깥쪽은 불룩하고 안쪽면은 胃와 脾臟에 붙어 있으며 오목하다.

* 비장은 人꼴에서 가장 큰 임파기관이다.

* 韃장은 길이가 12~15cm 정도이고 무게는 70g 가량으로 앞쪽만이 腹膜에 덮인 복막 뒷쪽에 있다.

* 모양은 편편하고 길며 마치 헛바닥 같이 생겼으며 빛깔은 핑크색이고 물렁물렁한 장기이다.

● 비장이 하는 일

* 韃장은 韃액을 만들어 小腸으로 보내어 消化吸收를 돕는 外分泌腺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 보내는 內分泌腺이 있다.

* 脾가 하는 일은 血液을 만드는 일과 血液을 저장하는 일을 쓸모없는 赤血球를 파괴하는 일 血液 속에 菌이 들어오면 이것을 없애주는 면역체를 만드는 일 및 임파구를 만들어 저장하는 일 등을 하고 있다.

췌장은 만들어진 췌액을 십이지장으로 해서 소장속으로 보내어 消化吸收를 돕는 일을 하고

- * 또한 ‘란겔한스씨도’라는 세포에서 호르몬 ‘인슐린’을 만들어 直接血液 속이나 임파속으로 넣어주어 피속의 糖分(설탕)의 양을 조절하는 일을 한다. 이 ‘인슐린’의 생산이 모자라면 血液中에 糖分이 지나치게 되어 糖尿病을 일으키게 된다.
- * 한방의학에서는 오장의 비를 실제로 비와 췌를 합쳐서 說明하는데 脾臟은 몸안에 들어온 水分을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 * 비장은 생리적으로 혈액을 통솔하는 일을 하고 있다.

● 脾臟의 病的症狀

비장이 혈액을 통솔하는 힘을 잃게 되면 여러가지 출혈성의 병 즉 만성出血 月經過多 子宮出血 등이 생긴다. 살이 찌고 여위는 것은 비장이 맡고 있다. 살이 여위고 몸이 약한 것과 四肢에 힘이 쪽 빠지는 것은 비장이 虛弱한 탓이다.

- * 비장과 입속과 直結되어 異狀이 생기면 안에 부스럼 즉 瘡이 생겨 혈게 된다.
- * 비장이 건강하고 또 病이 있는 것은 입술의 빛깔로 表示가 된다. 비장이 건강한 사람은 입술빛깔이 앵두빛 같이 붉고 潤氣가 있으며 비장에 病이 있으면 입술 빛깔이 창백해지고 윤기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 * 비장과 위장의 기능이 너무 강하면 신장과 방광이 약해지기 쉽다. 이들의 균형이 깨져 신장과 방광이 위축되면 여기에 병이 생기게 된다. 부종이 있고 腰痛과 後頭痛 어지럼증 눈이 빠질듯한 증상 등이 있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小便이 자주 나오며 신장암 방광암 신부전증 등이 나타나기 쉽다.

(부산·금정당)